

고용보장! 일터 괴롭힘 금지! 정년연장! 간부 교육시간 확보!
업무시간 외 근무지시 금지! 회사 내 식당 GMO식품 사용 제한! 기본급 123,526원 인상!



지부교섭 속보

08

2019.06.28()

□ :교육선전부 □발행인:김정태 □주소: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60번지 근로자복지회관 2층 □전화:043-236-5077 □http://dc.kmmu.kr

! 조정들어간다!

8 교섭까지 의견접근 무산! 7월 5일 일괄 조정신청!

냉각기 갖자!

결국 결렬됐다. 27일(목) 한온시스템 교육문화관에서 열린 8차 교섭에서도 의견접근에 이르지 못했다. 지부는 지난 교섭에서 임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요구안은 조정신청 전에 모두 의견접근하자고 제안했으나 8차 교섭에서 나온 사측 제시안은 한참 부족한 수준이었다. 김정태 지부장은 “오늘 교섭 결렬하고, 냉각기 갖자”며 결렬을 선언했다. 금속노조는 7월 5일 일괄 조정신청에 돌입하고 7월 8~1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2 제시안>

1. 2019년 임금인상 : 추후 제시

2. 일터괴롭힘 금지

①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일터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일터괴롭힘 행위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상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③ 노동자 내지 조합이 제1항의 일터괴롭힘이라 신고하거나 주장하면, 회사는 즉시 피해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피해근로자의 신원보호 및 가해근로자 등에 대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으로,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

는 제외한다)를 취하며, 즉시 조사위원회를 사업장 특성에 맞추어 구성하여 진상조사, 일터괴롭힘 여부의 인정, 시정조치 권고 등을 15일 이내에 완료하는 것으로 하되 필요시 15일 연장할 수 있다.

④ 일터괴롭힘 행위 발생시 회사는 일터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수립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조사위원회가 일터괴롭힘으로 인정한 경우, 조사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따라야하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및 배치전환 등을 통하여 일터괴롭힘이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때 회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일터괴롭힘으로 발생한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 및 피해를 입은 노동자 등에게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고용보장 : 추후 제시

4. 조합간부 유급교육시간 확보

조합간부 유급시간할애 시간이 년 3일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4시간을 추가로 인정한다.

5. 업무시간 외 근무지시 금지

회사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업무시간 외 근무지시를 SNS 및 전화 등을 통해 별도로 하지 않는다.

6. 정년 연장 : 현행 유지

7. 회사내 식당 개선

회사는 사내식당 개선을 위해 GMO표시제를 준수한 식재료를 사용하며, 전체 노동자 건강을 위해 GMO식품 사용을 제한한다. 또한 회사는 식당 식재료에 대한 세부사항을 분기별로 조합과 공유한다.

고용보장 빨리 수용해라!

： 신문보면 갈등이 있다. 국가, 지역, 집단, 개인간 갈등이 있다. 제가 학교 입학했을 때, 문과라 수학을 안배울 줄 알았는데 수학을 세게 하더라. 왜 수학이 필요한지 질문했더니, 실제로 수학을 배워서 쓸 경우는 별로 없지만, 수학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한다. 가장 쉬운 곱하기, 빼기, 더하기, 나누기만 할 줄 알면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수학을 잘하는 민족이라 잘할거라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귀한 시간 내서 온만큼 지혜를 모으면 무난하게 올해도 잘 접점에 이르지 않을까 한다.

노 : 중앙교섭은 화요일에 결렬선언했고, 7월 5일에 조정신청 들어가길 예정이다. 지부도 지난주에 말했지만 조정 들어가기 전에 임금 외에는 다 털었으면 한다. 오늘 제시안 기대하고 있다. 오늘 털어보자. 교섭을 7월에는 1~2번밖에 못한다. 7월말은 코스모링크, JCC가 휴가다. 그 다음주에는 부품사 휴가다. 8월 15일은 광복절이다. 추석 전에 교섭할 수 있는 횟수가 두 번밖에 없다. 노사가 지부교섭을 연말까지 갈거나 말거나 기로에 있다. 교섭 기간은 짧고, 여름휴가 전에 타결을 보면 좋겠는데 그게 어렵다면 추석 전까지는 해야하지 않겠나? 그걸 넘기면 연말까지 갈 수밖에 없다. 그럼 서로 힘든 과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걸 바라지 않는다. 오늘 제시안 보고 이후 교섭 어떻게 할지 얘기 나누면 좋겠다. 제시안 있으면 받겠다. 잠깐 정회하자. <13:05 정회> <13:25 속개>

노 : 노조가 의견접근 하기엔 아직 부족한 것 같다. 일터괴롭힘에서 파견, 용역, 특수고용노동자는 왜 포함 못시키는지? 저성과 유도행위, 구조조정 관련 압박,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한 일터괴롭힘은 왜 포함 안시키는지? 피해자가 요청하면 가해자 조치하는 것도

빼놓고 있다. 고용보장은 쉽게 낼 줄 알았다. 여기 6개 사업장은 고용 보장하려고 노력해왔고, 이 요구는 선언적인 부분인데 이것 조차 제시안 안넣는건 상당히 유감이다. 조합간부 유급교육시간 확보는 어떻게 보면 지회에서 보장하는 시간과 관계없이 조합과 지부가 하고자 하는 시간인데 지회 시간과 연관시키는 건 타당하지 않다. 이 내용은 시간을 안주겠다는 것과 같다. 철회해주기 바란다. 정년연장은 정부에서도 사회적 흐름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걸 제시하지 않은 건 문제가 있다. 이런 요구에 대해서 교섭위원들이 상당히 유감을 표명한다. 추가 제시안 부탁한다.

사 : 내부적으로 고민해보겠다. 조금 더 시간을 달라.

노 : 조정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교섭하면 임금 외 나머지 요구안 제시할 수 있나? 의견접근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할 의향 있으면 교섭 더 하고, 안될 것 같으면 조정 끝나고 한달 뒤에나 봐야할 것 같다.

사 : 회사는 정년연장이나 고용보장은 사실 쉽지 않은 상태다. 1주 더 시간을 줘도 지부가 만족할만한 안을 내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충고용 보장이 파견, 도급까지 다 포함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서 정말 부담이다.

노 : 고용보장은 사용자가 빨리 수용하는게 조합원들을 안심시키는 일이다. 올해 경기가 어렵다고 하고 상당히 민감한 문제다. 이걸 수용 안하면 이걸 가지고 투쟁을 갈 수밖에 없다. 정년연장은 더 논의가 필요할 거라고 본다. 계약만료 되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사업 지속성, 생산 연속성이 있고, 사람이 필요한데도 단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서 자르는 건 안된다는 거다. 오늘 교섭은 결렬하고 냉각기 갖고 7월에 보자.